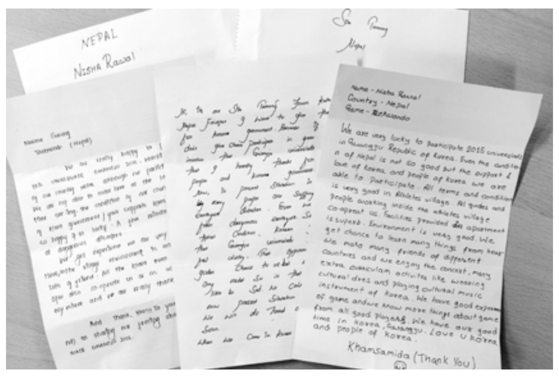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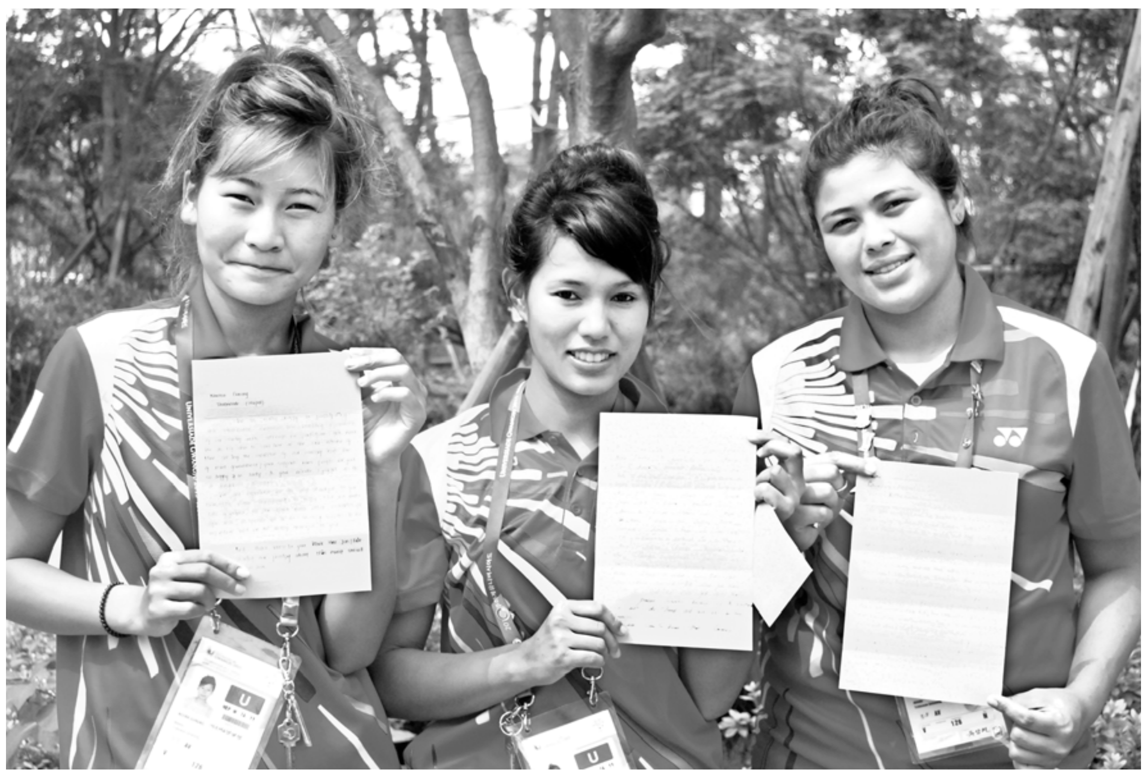
네팔 선수단이 광주시민에게 전하는 손편지

"광주서 얻은 희망, 네팔에 전할게요"



진심으로 응원해 준 시민 덕분에
지진 고통 잊고 U대회 뛴 건 '행운'
젊음으로 위기 극복 체육인답게
네팔 국민 재기하는데 도움 주고파



15일 오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에서 네팔 태권도 대표팀 3인방 니마 구룽·시타 타망·니사 라왈(왼쪽부터)이 광주시민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네팔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준 광주시민과 U대회 1만3000여 선수들과 쌓은 감동을 안고 돌아가겠습니다."

광주시민의 도움으로 U대회 참가의 꿈을 이룬 네팔 선수단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 편지를 선수촌에 남겼다. 이들은 태권도 부문에 참가했던 3명으로 대지진 참사로 폐허로 변한 조국에 희망을 선사하러 왔다. 체류비는 물론 선수단 유니폼조차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네팔 선수단 소식을 접한 광주시민들은 곧바로 유니폼과 신발, 성금 등을 전달했다. 직접 서포터즈까지 만들어 경기 내내 응원하는 광주시민에 힘입어 네팔 선수단은 매 경기에 최선을 다했다.

네팔 태권도 대표팀 3인방 중 맏언니인 시타 타망(여·21)은 "광주U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준 조직위와 광주시민에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며 "12일 동안 광주U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고 편짓글을 시작했다.

자국에서 좋은 훈련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광주시민이 모은 성원과 응원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현재 조국 네팔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낼 수 없을 정도로 폐허의 땅이 됐다"며 "하지만 젊음이라는 무기 하나로 위기를 극복하는 스포츠인답게 조만간 네팔 국민이 재기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한국의 드라마에 푹 빠져있는 니마 구룽(여·19)은 "찬란했던 광주U대회의 추억을 공유한 한국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썼다. 그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지진 참사로 피해를 입은 동료·친구들을 보는 내내 괴로운 나날이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광주에 발을 내디딘 첫날부터 진심으로 네팔 선수를 위로해주는 광주시민 덕분에 한순간이라도 조국의 지진 피해를 잊고 U대회를 즐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진 피해는 컸지만 아직 조국에 훌륭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다"며 "네팔을 찾는 한국인, 특히 광주시민을 보면 직접 나서 그들의 여행을 돕고 싶다"고 귀띔했다.

선수촌에서 한복을 입거나 장구·꽹과리 등 전통 악기 다루기를 좋아한 니사 라왈(여·19)은 "짧은 시간 동안 한국 문화를 속속들이 접할 수 있었다"며 "아직 태권도 실력이 뛰어나지 않지만 다른 나라의 훌륭한 선수를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툰 표현이지만 한국 친구를 통해 배운 '감사합니다'를 'Khamsamida'라고 쓰며 편짓글을 맺었다. 이들은 오는 17일 선수촌을 퇴촌한 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열린 무주에서 사흘 동안 한국의 태권도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다른 대회 일정으로 먼저 네팔에 귀국한 펜싱 선수 상지 라마(19)도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U대회에 참가한 사진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르면서 네팔 친구를 비롯한 전 세계인으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편지에 "유니버시아드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모든 세계인이 화합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며 "U대회를 통해 전 세계인을 친구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적었다. 또한 한국에서 받은 펜싱용 칼(플뢰레)은 집안 가보로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단=백희준기자 bhj@

U대회 성공 시민 감사 콘서트 개최

19일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성공 대회'로 마무리되면서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U대회 성공 시민감사 콘서트' 행사를 갖는다.

광주시는 오는 19일 오후 7시 U대회 개·폐회식이 열렸던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U대회 성공 시민 감사 콘서트'를 계획 중이다. 개·폐회식의 감동을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재현해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날 감사 콘서트에는 가수 인순이, 김경호, 신효범, 박현빈을 비롯한 걸그룹 레인보우, 밍스 등 12팀이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광주시내 간선도로변 곳곳에는 행사 참여 시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폐회식이 끝난 다음날인 15일 광주 도심 곳곳에 U대회 기간 적극 협조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U대회 성공 개최를 자축했다.

'유니버시아드 성공! 위대한 광주시민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로 만들어진 플래카드를 지켜본 시민들은 저마다 자부심에 찬 모습이었다.

시민 최모(43·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모두가 힘을 모아 큰 대회를 잘 치러냈다는 마음에 가슴이 뿌듯하다. 또 다시 대규모 행사가 열리더라도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특별취재단=김경인기자 kki@

광주·전남 암환자 10년새 55% 늘어

2012년 1만7168명 발생
대장암 2055명…87.7% ↑
5년 생존율도 꾸준히 증가

광주·전남 암환자 발생건수가 10년 새 50% 넘게 늘었으며, 암환자의 5년 생존율도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화순전남대병원 전남지역암센터와 광주·전남지역 암등록본부가 발표한 암 발생률과 생존율 현황에 따르면 2012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1만7168명이었다. 이는 2003년(1만1049명)보다 55.4% 늘어난 수치다.

특히 대장암은 2012년 2055명이나 발생, 2003년과 비교해 87.7%가 증가했다. 2012년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567건, 21.2%), 위암(2411건, 14.3%), 대장암(2055건, 12.2%), 폐암(1854건, 11.0%), 간암(1421건, 8.5%) 등 순이었다.

이중 광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1413건)이었으며 위암(804건), 대장암(731건), 폐암(562건), 유방암(461건) 순이었다. 남자의 경우 위암·대장암·폐암·간암·갑상선암 순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갑상선암·유방암·대장암·위암·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5년 생존율도 증가했다. 광주의 남자는 1997년 35.5%에서 2008년 56.2%로, 같은 기간 여자는 54.7%에서 77.0%로 늘었다. 1999년부터 생존율 집계가 이뤄진 전남의 남자는 1999년 31.6%에서 2008년 50.8%로, 여자는 51.0%에서 68.2%로 증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 메르스 관리대상자 '제로'

오늘 해제… 광주는 18일 해제

전남도는 15일 "16일을 기해 여수지역 자가격리 대상자 1명이 마지막으로 격리 해제되면 메르스 관리대상자가 '제로'인 상태로 사실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일단락된다"고 밝혔다.

전남은 지난 5월 29일 완도군에서 첫 의심환자가 접수됐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6월 9일 보성군에서 도내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자체 메르스 경계수준을 '심각' 상태 수준으로 유지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첫 확진자(113번째 환자)와 접촉한 537명에 대해 자가격리와 능동감시 조치를 취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자가격리자 290명, 능동감시자 434명, 병원격리 19명 등 743명을 담당공무원이 1대 1 전담관리해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 47일 만에 메르스 사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광주에서 격리돼 있는 6명은 오는 18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적으로 메르스 환자가 10일째 추가 발생 하지 않아 메르스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메르스 종식을 공식 선언 할 때까지 전남도 메르스대책본부는 방역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또 최근 홍콩에서 유행하는 홍콩독감과 에볼라 등 해외신종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세월호 인양 최우선 협상자에 中-한국 컨소시엄

중국 업체가 주도한 컨소시엄이 세월호 인양 업체 선정에서 최우선 협상대상자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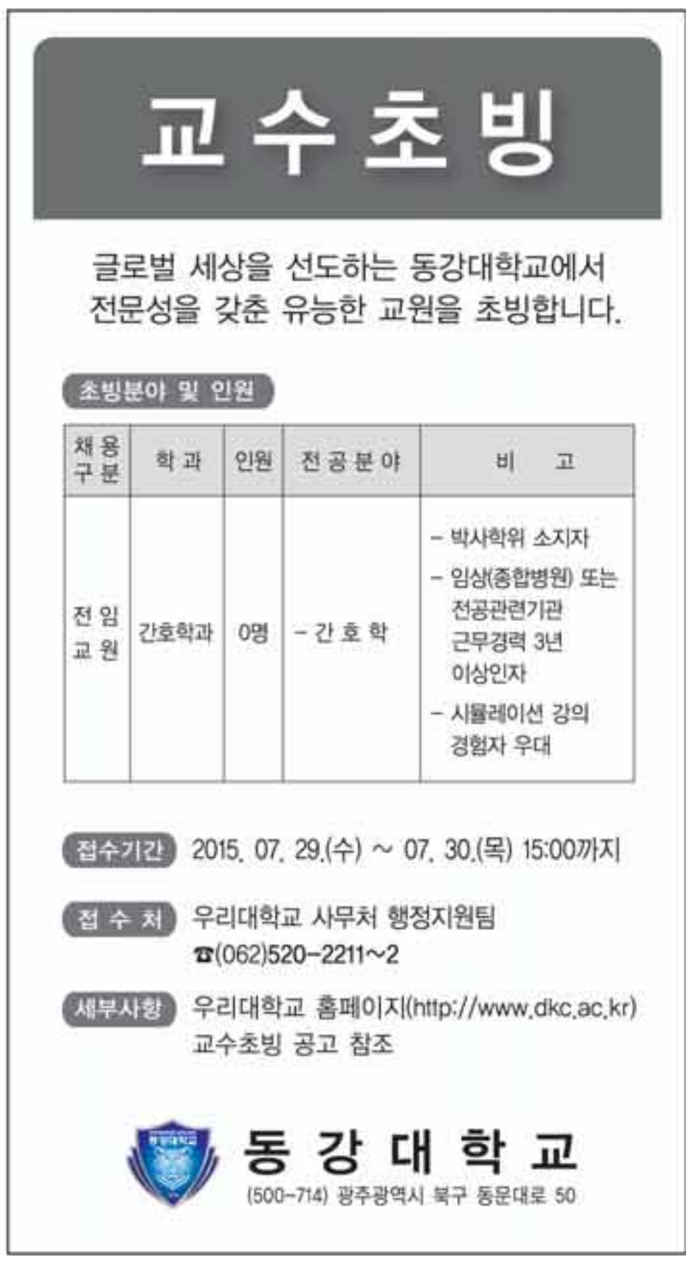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와 조달청은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샐비지'와 '차이나 옌타이 샐비지'가 각각 이끄는 컨소시엄이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에서 1순위와 2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상하이 샐비지는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업체로 작년 매출액이 3220억원, 잠수사 등 구난분야 전문인력 1400명 가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상하이 샐비지와 우리나라 업체 오션씨엔아이가 지분을 7대3으로 나눠 구성한 컨소시엄은 이번 입찰에서 계약금액으로 851억원을 제시했다. 이 업체는 세월호 선체 내 빈공간에 압축공기를 주입해 선체를 약간 들어올린 후 선체 아래에 3.5m 간격으로 50여개의 인양용 철제 빔을 설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인양용 빔을 1만t급 크레인에 연결해 선체를 수심 23m까지 끌어올린 후 세월호가 침몰해 있는 맹골수도에서 2㎞ 가량 떨어진 안전지역으로 수중 이동시키게 된다.

이후 안전지역으로 옮겨진 선체는 대기하고 있는 반잠수식 플로팅도크에 선적돼 배수 등을 작업을 거친 뒤, 목포신항까지 120㎞가량을 이동해 육상으로 올려진다.

상하이 샐비지 방법은 외부에 인양용 철제 빔을 따로 설치한다는 점과 수심 23m까지 올려 수중 이동한다는 점에서 앞서 정부가 기술검토한 방식과 다르다.

/연합뉴스